

스마트폰 정전식 터치패드 개발 주역 제임스 정

“실리콘밸리 닮은 광주에서 크게 사고 한번 치고 싶다”



“광주는 25년 전 실리콘밸리를 닮았습니다. 인구·기후·도로망까지, 그래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세계 터치패드 생산현장을 소다니며 쌓은 경험을 광주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넵틱스에서 정전식 터치패드 개발을 주도한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정(한국명 정진화·50)은 “스마트폰 열풍의 주역인 정전식 터치패드를 광주가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광주에 등지를 틀었다. 지난 5월18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 설립한 솔렌시스(Solensys)의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부사장으로. 지인인 대우그룹 출신 우관재 사장의 “국내에서 한번 크게 사고를 쳐보자”는 유혹에 빠져 18만달러에 달하는 시넵틱스의 스톡 옵션도 포기하고 합류했다.

정 부사장이 터치패드와 인연을 맺은 건 2007년이다. 아이폰 출시 4개월 전인 모바일로는 첫 모델인 LG 프라다 폰에 적용된 정전식 터치패드를 개발했다. 이후 LG 초콜릿폰과 캐나다 립(RIM)의 블랙베리스톱, 구글 G1 등의 터치패드가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인하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홀단신으로 미국으로 떠난 게 23년 전이다.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주유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다. PC조립기술이 있어 주유소에서 틈나는 대로 PC를 조립해 팔았다. PC 조립으로 돈을 약간 벌자 정보기술(IT)에 욕심이 났다. IT로 성공하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실리콘밸리로 향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영상보안 사업체를 창업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미라지 등 초대형 호텔이 그 만든 영상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카메라 2000여 개의 영상정보를 한꺼번에 저장하면 용량이 너무 커져 너댓 개 카메라의 정보를 묶어 저장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직장에서는 웹캠 떨어뜨려도 손상이 없는 군사용 노트북PC를 개발했다.

그의 이같은 경험은 터치 기술로 꽃을 피웠다. 터치 패드는 신소재·재료공학·기계 등 6~7개 기술이 집약된 종합 기술이다. 한 분야만 알아서는 성공할 수 없다. 또 터치 기술 뿐만 아니라 디자인·설계도 필요하다.

“터치 기술은 손재주가 기본입니다. 한국인은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먹는 손재주를 가졌습니다. 또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죠. 한국이 제격이죠.” 정 부사장은 “앞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이 다수 출시되면 내년에만 1억4000만 개 이상의 터치패드가 필요해진다”며 “효율 높은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터치패드를 제때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문화 향상 아이디어 공모전’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문화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공모전에는 보험업계 정비업체 의료계 등 자동차보험 관련 업계 종사자는 물론 자동차보험 문화 향상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금 누수 방지 ▲교통사고 예방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수 제안자는 법무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손해보험협회장 등의 표창과 총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공모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는 자동차보험 경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해보험회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나 전화(02-3702-862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노조위원장에게 이상채씨

광주은행 노동조합 16대 노조 위원장으로 이상채(40·광주법원지점·사진) 후보가 당선됐다.



2일 광주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개표결과 이 후보가 유효투표 921표 가운데 476표(51.68%)를 얻어 김두봉(229표), 권택은(216표)을 누르고 위원장에 선출됐다. 광주은행 노조 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이 당선자는 “권력조각이 아닌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이끌겠다”며 “노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또 광주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분리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고용안정과 자율경영이 확보되는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광은 비자카드 이용하면 더 드립니다”



광주은행이 연말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신용카드 사용 고객을 위한 ‘더 드림(Dream) 이벤트’를 진행한다. ‘더 드림 이벤트’ 행사기간 동안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 시 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 기간 동안 광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 참여 등록을 한 고객에게는 전국 모든 골프장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 5%를,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김장시장 3~4일 상무지구 직거래장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2일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3~4일 이틀동안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정기 직거래장터에서 김장시장을 연다고 밝혔다.

직거래장터에서는 무 1단(6~7개)에 6000원, 배추 1단(3포기)에 7000원 등 시중 가격보다 약 40% 싸게 판매한다. 또 대과, 쪽파, 생강, 마늘, 말린 고추, 고춧가루, 찹쌀, 천일염 등 김장재료도 10~20%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해남 화원농협 ‘e-맑은 절임배추’도 10% 할인된 2만2000원(10kg 1상자)에 판다.

김장시장에서는 (사)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와 함께 ‘희망모아 행복 나누는 사랑의 김치담그기’ 행사를 마련해 절임배추 400포기로 김치를 담가 전남지역 11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건설 인수전 ‘진흙탕 싸움’ 된다

현대차그룹, 매각 주관사인 외환銀 예금인출...갈등 고조

현대건설 인수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인수전에 밀린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과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를 맺은 현대차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외환은행에서는 예금을 인출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최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외환은행에서 1조 5000억원 안팎의 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은 현대차그룹의 주거래은행이다.

현재 외환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현대차그룹 등 법현대가(家) 기업들의 예금규모는 5000억원 미만인 것

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의 예금을 인출해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이 별로 없다”며 “그러나 외환은행은 유동성에는 별 문제가 없고 예금은 다시 예치할 수도 있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과 현대건설의 MOU에 대해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제위인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000억원 출

처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냈다.

금융권에서는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현대건설 매각을 놓고 현대그룹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외환은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현대차그룹의 ‘공격’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전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그룹이 인수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 계약을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 양해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MOU 체결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업무 수행,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차입금 1조2000억원 출

주식 예약법인 3471개

예비 상장법인 1600개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현재 예약법인으로 지정돼 발행 주식을 예약할 수 있는 기업이 3471개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예약법인 가운데 1863개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고 나머지 1608개는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예약법인으로 지정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2000년 말 2117개였던 예약법인이 지난 10년 동안 1354개 증가해 3500개에 육박하고 있다”며 “예약법인 중 비상장법인 1600여개는 향후 상장 가능성이 있는 예비 상장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복구 대형마트 입점 계획 없다

SSM 보류는 유통법 준수 뜻”

삼성테스코 공식 답변

복구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논란과 SSM 출점 강행으로 지역 중소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온 삼성테스코가 복구 매곡동 대형마트 출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에 따르면 삼성테스코가 광주시의회가 보낸 ‘복구 대형마트 입점 계획 여부’와 ‘SSM 출점 보류에 대한 의미’를 묻는 공문에 대해 공식답변을 했다.

삼성테스코 측은 공문을 통해 “복구 매곡동 대형마트와 관련해 입점 계획이 없으며, ‘SSM 출점 보류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하겠다는 뜻’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대형마트 출점과 관련해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마트, 삼성테스코, 농협중앙회 등 대형 유통업체 5곳에 대해 공문을 발송했지만, 지난달 30일 농협중앙회와 삼성테스코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빠른 시일안에 광주시민의 공익질문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한다”며 “더 이상 숨지 말고 지역사회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겨울 눈꽃세상” “한라산등반” 大 특가 (2011년 2월 24일까지)

“올레길”도 걷고 “오름”도 보고, “한라산”도 오르고, “관광열차”도 타고~

배타고 갈 필요 있나요~! 왕복 항공으로 더욱 저렴하고 편안하게~!

상품1 올레길+한라산 등반

광주 왕복항공 1박2일 ₩99,000~

★ 출발일 : 12월 12, 19, 26 // 1월 9, 16, 23, 30일 ...★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광주출발(오전)-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제주 올레테마공원-중식-올레길 체험(14코스)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 한라산 등반-중식(도시락)-농수산물 직매장 공항으로 이동-제주 출발(오후)-광주 도착

상품2 올레길+한라산등반+관광열차 여행

광주 왕복항공 2박3일 ₩139,000~

★ 출발일 : 12월 13, 14, 20, 21, 27, 28 // 1월 3, 4, 10, 11일, 17일, 18일...★ 매회 8명이상 조건 // 기타 날짜 요금 인상.

일 자	여행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 집결 (출발 40분전-개인보딩/신분증지참) ● 광주출발(오후) 제주도착 후 가이드 미팅 ● 호텔 도착 후 자유시간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 한라산 등반-중식(도시락) ● 호텔도착 후 자유시간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텔 조식 후 ● 선택관광(삼국지랜드 OR 코끼리쇼) ★ 제주에코랜드 생태 공원 열차 체험(50분) ★ 조랑말체험(단거리승마체험)-중식 성읍민속마을 초기집 관람 ★ 일출랜드 ● 제주출발(오후) ● 광주도착

※365일 제주도 항공권 확보 **공통포함사항** 왕복항공료, 일반호텔(5-6인실), 차량, 일정내관광지요금, 식사(확인요망),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기사가이드(1인 10,000원) ● 선택관광 ● 유가할증료

KOREANAIR 아시안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투어클럽&스피드 골프 투어 062)382-8201